

도민 스포츠 한마당 '전남체전' 내일 장성서 열린다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21일까지 나흘간...22개 시·군 6950명 23개 종목서 경합 다양한 이색선수 출전...린·김연자 공연 등 볼거리 다채

전남도민의 체육 한마당 대잔치인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장성군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남체전은 '꿈을 안고 장성으로, 전남을 품고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18일부터 21일까지 장성 엘로우스타디움 등 2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는 22개 시·군에서 총 6950명(선수 4605·임원 2345)의 선수단이 참가, 축구·육상·축구 등 총 23개 종목에서 경합을 펼친다.

역대 처음으로 장성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2025년 장성 방문의 해와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대회 성공개최·준비를 위해 워라밸돔구장, 장성실내수영장 등 주요 종목 경기장과 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장성군에서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환경 정비, 숙박·음식업소 정돈 등 선수단과 관광객 등 손님맞이 준비를 마무리했다.

대회 기간에는 선수단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성장 장성' 락페스티벌, 서예 체험, 편백제품 만들기, 기초체력 측정 체험존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장성 엘로우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환영사 △기념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체육인헌장 낭독 △선수선서 △성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축하 콘서트에는 김태연, god 호우, 린, 김연자, 정동원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나선 대표선수 중 이색선수들의 출전이 눈에 띈다. 최고령·최연소 선수부터 전·현직 국가대표, 가족 출전 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올해 대회의 최고령 참가자는 나주시 소속의 김재근(소프트테니스)다. 90세의 나이에도 꾸준히 라켓을 쥐고 코트를 누비며 체력 다저온 김재근씨는 '건강한 장수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 소속 이한우씨(포환·원반던지기)는 17세 나이로 참가해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4회 연속으로 참가하는 광양시 육상팀 김동욱씨(59)는 최다 출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가족 단위의 출전 또한 26개 팀에 이른다.

보성군 자전거점 전승기부(56세)는 부인 강현자씨, 딸 정경현씨와 함께 출전한다.

이외에도 여주시 육상팀 오은숙·김류진 모자, 광양시 수영팀 설수정·설지선 쌍둥이 자매, 신안군 축구팀 문세윤·문두윤 형제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 역시 전남도민으로서 각 시·군을 대표해 참가, 수준 높은 경기력을 예고하고 있다.

전 국가대표로는 육상 서우연, 수영 이지은(이상 광양시), 소프트테니스 이경천(담양군), 배구 이소라(신안군)가 출전한다. 현 국가대표로는 복싱 주태웅(화순군)이 기량을 뽐낸다.

여기에 유명 스포츠 스타인 여자해머던지기 1인자 박서진(목포시), 포환던지기 정일우(여주시), 씨름스타 김민재·차민수·최성환(이상 영암군민속씨름단) 등도 나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장성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남도체육대회가 도민 모두의 열정과 화합 속에 힘차게 열리게 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나아가는 체전이 되길 바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도 체육의 저력을 보여주는 최대 규모의 대회가 장성에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각 시·군을 대표해 참가한 선수들이 정정당당한 경기로 기량을 마음껏 펼칠길 응원하며, 끝까지 안전하고 멋진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장성·이항범 기자 lb6689@gwangnam.co.kr



엘로우스타디움



지난 제63회 전남체전 장성군 선수단 입장

'ACLE 8강' 광주FC, eACLE 무대 도전

AFC 주관 e스포츠 대회 참가...24일부터 사우디서 일전 광주 대표 송영우·이승민 "빛고을 명예 걸고 최선 다할 것"

ACLE 8강 진출에 성공한 프로축구 광주FC가 이번엔 온라인 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주FC는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2차전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비셀 고베를 3-0으로 제압, 합산 스코어 3-2로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 ACLE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아시아 무대에서의 좋은 기운을 e스포츠팀이 이어받는다.

광주는 AFC가 주최하는 2024-2025 AFC e 챔피언스리그 엘리트(eACLE) 무대에 출사표를 던졌다.

eACLE는 AFC가 주최하는 온라인 대회로 'KONAMI의 eFootball™ 2025' 플레이스테이션5 콘솔 비디오 게임으로 진행되며, ACLE에 참여한 16개팀이 대결한다.

대회는 이달 24일 조별 리그를 시작으로 26일 16강, 27일 8강, 28일 4강 및 결승 순(이하 현지

시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는 울산HD, 포항스틸러스(이상 대한민국), 필두로 조호르 다람 타짐(말레이시아), 센틀렐코스트 매리너스(호주), 부리람 유니타드(태국), 상하이 선화(중국),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와 함께 동아시아 권역에 속해 자웅을 겨룬다.

광주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선수는 송영우, 이승민이다. 송영우는 게임사 주관 공식 오프라인 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로 10회 이상 출전했다.

코나미 PES리그 한국 대표 선발전(2016년), 코나미 PES리그 한국 파이널(2019년) 우승 등을 비롯해 국내 다수의 대회를 석권해 이 부문 최강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국제 대회에서도 AESF e마스터스(2020년 3위), AFC e아시아 컵(2023년 준우승), IFeL 아시아 챔피언십(2024년 5위)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이승민 역시 기대를 모으는 참가자로 PES 한국 대표 Co op 선발전 3위, PES 국가대표 상비군 Team xforce 리그 아시아 2등·3등, Efootball 2024 국가대표 선발전 8강 등의 이력을 보유했다.



송영우 선수 이승민 선수

송영우·이승민은 "광주FC 대표로 eACLE에 참가하게 돼 영광이다. 광주의 명예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실력을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여주시청 요트팀,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금빛 질주'

혼성 2인승 470급 김창주·이경진

여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이 올해 첫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창주·이경진 선수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북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국가대표 선발전)' 470급(혼성 2인승) 종목에 출전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경정이 더욱 치열했다.

470급 김창주·이경진 선수는 지난해 여주시청 요트팀에 입단해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강풍과 추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최정상급 실력을 증명



여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북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했다. 진홍철 요트팀 감독은 "지난 동계기간 동안 체계적인 훈련으로 경기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최

선을 다했다"며 "더 좋은 성적을 거두 납에만 걸썩 도시 미항여수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

이정후, 필라델피아전 2루타 포함 멀티히트 폭발

타율 0.333...수비서 시즌 첫 보살

'바람의 손자'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무안타 침묵을 한 경기만에 끝내고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 활약을 펼쳤다.

이정후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타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방문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를 치고 1타점 1득점을 곁들였다.

이정후의 타율은 0.323에서 0.333(67타수 23안타)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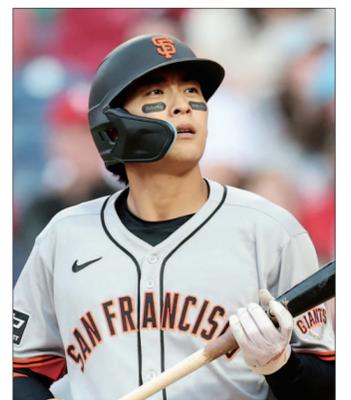
또한 시즌 OPS(출루율+장타율)는 1.051이 됐고, 시즌 9번째 2루타로 이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 선두를 지켰다.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내야 땅볼,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던 그는 2-2로 맞선 6회 2루타로 침묵을 깼다.

이정후는 필라델피아 원소 선발 투수 루사르도의 초구 스위퍼를 잡아당겨 우익선상 2루타를 터뜨렸다. 바로 앞 타석에서 루사르도의 스위퍼에 속아 헛스윙 삼진을 당했던 그는 똑같은 공이 들어오는 걸 놓치지 않았다.

이정후는 폭투로 3루에 간 뒤 월터 플로레스의 내야 땅볼 때 손살같이 홈에 파고들어 3-2로 앞서 가는 역전 득점까지 책임졌다.

팀이 3-6으로 다시 끌려간 8회에는 추격에 시동을 거는 적시타를 때렸다. 무사1, 3루에서 타석에 선 이정후는 필라델피아



강속구 원소 불펜 투수 호세 알바라도와 만났다. 이정후는 8구째 폭투 높은 시속 100마일(약 161km) 싱커를 공략, 1루와 2루 사이를 통과하는 적시타로 연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적시타로 4-6으로 따라붙고 무사 1, 3루 기회를 이어갔으나 후속 세 타자가 모두 범타로 물러나 타는 추격하지 못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4-6으로 패해 시즌 5패(12승)째를 당했다.

이정후는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보였다.

3회말 1사 1루에서 카일 슈워버의 깊숙한 뜬공을 잡아낸 뒤 정확한 송구로 2루로 태그업 한 1루 주자 브라이스 하퍼를 잡았다.

이정후의 보살은 올 시즌 처음이다. 연합뉴스

김연경, 흥국생명 어드바이저로 새출발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배구 여제' 김연경(37)이 어드바이저라는 직함으로 배구와 인연을 이어간다.

김연경은 프로배구 V리그 시상식이 열렸던 지난 11일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후 인터뷰에서 은퇴 후 진로를 묻는 말에 "흥국생명에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은퇴 후에도 배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김연경의 희망이 이뤄진 것이다.

흥국생명 어드바이저는 구단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포함한 세부

조용은 남아 있는 상태다.

우선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및 드래프트 현장에 동행하는 일정은 확정됐다.

김연경은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사령탑으로 옮긴 마르첼로 아본다자 전 감독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은 요시하라 도모코(55) 감독에게 외국인 선수 선발과 관련된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은 통합우승 주역인 외국인 거포 투트쿠 부르주(등록명 투트쿠)와 재계약하지 않은 채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상황을 지켜본 후 어떤 선수를 뽑을지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